

21세기 향한 가정 교육세미나

91.8.15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은 핵가족화의 걸모양은 갖췄으나 가부장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어정쩡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끈다.

서울대 문용린 교수(교육학)는 한국여성사회교육회 주최로 13, 14일 열린 '21세기를 향한 가정교육'세미나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가족제가 단순세대화돼 핵가족화의 모습은 띠었으나 가부장적 권위가 핵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성들이 가부장 의식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문 교수는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가족이 공동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같이 보고 읽으며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문 교수는 또 정치·경제·사

"핵가족 가부장 권위의식 여전"

가족의 세대주인 남편에게 그대로 옮겨왔은 상태"라고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를 분석했다. 따라서 핵가족화의 특색인 '가부장 의식이 배제된 한가족 중심주의 사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부장적 권위 가치와 핵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가치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중가치는 가정교육의

회·교육을 통해 인간중심적 가치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시대가 될 21세기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민주화되고 △가족 안에 존재하는 성차별 의식의 불합리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가족 사이의 인격적 대우가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부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자녀들이 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